

타고 가는 주인이 수레를 버리는 듯, 사람이 죽은 다음 마음이 떠나면, 살은 없고 뼈만 골여지나니, 이 몸들이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라. (法句經·노모품 175절)

제1055호 (주간)

1964.1.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3호우림출(7)남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9월12일(수요일) 【1】

## 총학 선거 11월 실시등 회칙 개정

### 민주집중제 실현 위한 학대표자회의 대폭 강화 오는 11월 21·22일 양일간 제23대 총학 선거

‘학대표자회의의 권한강화와 총학선거의 11월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총학대표자회의가 지난 4일 학대표자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회칙개정은 지난 회칙이 형식적이고 기구별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3월 선거로 인한 사업준비 미비등의 문제점이 이번 총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전 반적인 회칙개정의 일환으로 학생회사업이 침체했다는 전반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학칙개정소위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준비작업을 거친 상태에서 이뤄졌다.

회칙개정소위는 이번 개정이 △대중의 이해와 요구실현 △민주집중제 실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지향등의 원칙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총학운영에서 이뤄졌는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대중의 이해를 대폭 수정, 자주·민주·통일 및 학원자주화를 최고이념으로 선언(전문-제1장 총칙2

조) △총대의원회는 감사, 선거, 예산부반만 맡고 학대표회의에 권한을 대폭이양(제3장 학대표회의 18조, 제5장 대의원총회 29조) △학생회간부에 대한 소환 및 파면권 강화(제17장 학생회간부의 소환 및 탄핵 83, 84, 85조) △기존 대의원 구성(각과 학년별 1인씩)을 각과별 1인씩 대폭축소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진행 도모(제5장 대의원총회 26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를 총학산하 공식기구로 명문화(제13, 14, 15장) △총학선거의 11월 전환(제18장 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부칙1조) 등이 있다.

또 개정안의 신설내용으로는 인사학장총회(제4장)가 포함됐고 제1장 총칙 3조(사업)에서는 복지문제, 대학문화확립, 학문사상의 자유확립등 학생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칙이 개정됨으로써 총대의원회는 오는 10월22일 증선위 구성, 11월 5, 6일 단과대학



◇본교생 2백여명은 지난 5일 하반기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양심수석방'과 '파소장기집 권문모 저지' 등 구호를 외치며 2학기 첫 기두투쟁을 나섰다.

회장선거, 11월21, 22일 총학 생활장대 대의원선거 등을 일점으로 잡아놓고 있다.

한편 총학생활장선거의 구체적인 사항은 증선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 하반기 총학 진군식 열려 민총선거완수·반민자당 투쟁 결의

‘하반기 총학 진군식’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총학생회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있었다.

첫째날인 지난 4일에는 ‘학대표자회의’가 총 74명중의 결정적수인 과반수가 조금 넘는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학원관 소강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부학 생활장선거 11월 이전 △학생 대표자회의의 권한 강화 △대의원총회 역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총학생활회 개정안이 3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학자투와 관련된 안전 중 총장선거에 대해서는 △교수·학생·직원 3자연석회의 결의 △민총선거를 위한 학생대책위 구성 및 총장선거장동반리위원회 구성 제안 △교수직 선의 단일 후보 추천 요구 등이 결의됐다.

둘째날인 5일에는 ‘양심수석방과 민자당 장기집권 분쇄를 위한 하반기 투쟁 선포식’이 오후2시 도서관 앞에서, ‘개강맞이 동인 한마당’이 오후6시 만해광장에서 각각 열렸다.

세계날인 6일에는 ‘민총선거와 하반기 학자투 선포식’이 오후 1시 학생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학자투위원장 박정규(국문4)군은 “단위투쟁을 극대화시켜 민주총장선거를 시수해야 한다”며 교과위의 3자 연석회의등 제도적 틀 재건과 교수·학생·직원 3자 합의에 의한 민주총장선거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총장선거장동반리위원회의 구성을 대중적으로 제안했다.

## 법대 학술강연회 개최 “인권침해, 국제법마련 통해 해결”

‘현대국제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가 법과대학생회 주최로 金東勳(일본 龍谷大 법학부장)박사를 초청, 지난6일 오후2시 학생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M501)에서 열렸다.

제일한국인 1세로 한국인으로 龍谷大 초대 민선법학부장(학장급)이기도 한 김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차별을 예로들며 “현재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제

인권침해, 국제법마련 통해 해결”

일인권인 지문·날인등은 엄연한 인권차별이다”고 폭로했다.

김박사는 “세계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차별을 물론 자 나라마다 그 실정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이 차별되는 것에 관해서는 국제법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제일한국인의 인권보장이 없는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총장후보 내달 13일 선출

### 교수합동대의원회 총회장에 金長好 교수 인준

교수회는 제13대 총장선거를 오는 10월13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람기사 7면)

지난8일 오전10시 총장선거 일정 및 교수회장단 인준을 안건으로 한 서울-경주 합동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이번 총장선거일정은 오는 13일까지 서울-경주 각과대 교수대표 1인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구체적인 선거세칙 및 일정을 확정해 된다.

서울-경주교수회 대의원 총

43명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합동대의원회에서는 지난21일 서울캠퍼스 교수회 인사총회에서 선출된 金長好(국어교육)교수총회장 직무대리와 부의장 孫運(사회학)교수를 개정교수회칙 제14조 임원선출관련 조항에 의거, 각각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총회장과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이날 합동대의원회는 제2대 교수회 대의원 선출된 徐潤吉(불교학)교수등 신인 대의원

들의 상견례를 가진 뒤 오는 13일까지 각 단과별 1인의 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고 선별작업에 들어갔으며, 후보자 등록 및 공청회등 구체적인 일정은 선관위를 구성한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

## 보직교수 일부개편

### 정년퇴임-사표제출 등으로

예술대학장 張漢基, 이부대학장 安恩明, 기획조정실장 趙熙榮(경영학), 총무처장 林英正(역사교육과) 교수등이다.

한편 학술부장은 金南煥(경찰행정학과)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번 보직인사는 柳福浩 전 기획조정실장과 成福吉 전 총무처장, 金鎭基 전 학술부장이 지난 8월중 각각 사표를 제출했고, 그간 金英南(외국학과)교수가 경상대학장과 이부대학장직을 겸임 해왔으며 金賢德 전 예술대학장이 지난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해 이뤄졌다.

## 재직등원회학급

### 본교 재직등원회(회장-李秉東)는 지난 24일 퇴임교수 위촉연장에서 이상삼(독문·4)군에게 재직 등원회 장학금(수업료전액)을 전달했다.

△서울캠퍼스 △인재취材1次長 南宮 銀(문과대 영문2) △인재취材2次長 金榮蘭(사범대 수교2) △인재취材3次長 南哲範(농과대 농업경제2) △인재취材4次長 崔潤玉(사범대 국교2) △인재취材5次長 柳基容(법과대 법2) △경주 캠퍼스 △인재취材2次長 李 鎭基(법과대 법2) △인재취材3次長 車玉景(인문대 교미사2) △인재취材4次長 李 亨煥(인문대 국문2) (이상 8월29일)

그것은 하나의 허리케인이었다. 분명히 남쪽이나 북쪽의 분단 민족에게는 말이다. 북쪽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분단 45년 만에 인연과 함께 서울에 온 사실이 말이다. 그들의 속사근저를 분주하게 경호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허리를 차는 이도 있었다. 모두 한 핏줄이라는 대명제 앞에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민족이 우선이나 이념이나 제제가 우선이나는 우위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민족이 우선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도 단군의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는 어언 언어가 달라졌고 북색의 치장이 달라졌으며 思慕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쪽의 互相이라는 말을 북쪽

반 제3의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타내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이를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같이 멈추는 일없이 나자마자 곧 사라진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없는 마음을 방치해 둘 수만 있는 일이라고 動而行之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 다.

폭풍우가 지나간 돌너비 蕪穢가 남지만 이번 북쪽에서 불어 온 허리케인은 분명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한아름 안겨 주었다. 마음 닦듯이 정성스레 기우는 일 뿐이다. 잘못 무성한 계곡에도 인간의 뜻은 왕래에 의해서 오솔길이 나듯이.

崔 玄 覺

마음 닦듯이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과거인가 미레인가 현재인가 만약 과거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마음이라면 머무르는 일이다.

마음은 안에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 7월14일 날치기 사건...

날때부터 날치기로 태어난 민자 그들은 그날 불과 몇분만에 방송법·군조직법 등을 날치기해갔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것을 훔치기위한 준비였다.

### 그리고 9월10일 정기국회, 이번엔 무엇을 훔치러?

이제 그들은 확실한 것을 훔치기로 했다. 내각제...  
 맘놓고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는 큰 것/  
 하지만 이번만은...

민족자주 언론을 구현하는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 社 說

## 재단, 의무부터 수행해야

총학생회와 교수회를 비롯한 동아의 재구성원들의 학원발전 및 자주화에 관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얼마후에 있을 민주총학생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호기부까지 더해져 교수입문문제, 인사이동등은 동아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많은 자극을 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문제와 학자 무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는 여러차례를 거친 후라도 불리었고, 불교학과와 일본과의 교수임용에 관한 싸움은 논쟁시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내구성원들은 근면인 모순으로 재단의 입김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신구총장정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총장사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 학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학자부담을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총장사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 학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총장사퇴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를 지지했던 재단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며, 동아발전의 측면에서 재단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재단의 올바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만 동아의 발전은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기간에 재단은 책임을 방기한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강요해 책임보다 권리에만 관심을 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단의 사업부에서 교수채용등 모든인사권을 장악하고 학교행정에 속속드러 간여해 왔으며, 총장선출에 있어 무제한한 압력을 가해왔던점은 좋은 실례이다. 반면에 경주병원건립과 학교발전을 위한 건물신축등 시설향충등의 교육여건조성에 관한 활동은 미비했다.

경주병원은 건축공사비만 87억원이 미치지 않았고 실제 병원운영을 위해서는 50억 원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중 몇손가락안에 꼽히는 재단에서는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상황이다.

재단에 대한 막연한 비판을 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의 정확한 수행을 당부하는 것이다. 총학생회와 재단정리를 무시한채 이적까지 넘어가다보면 그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일때는 멀다. 앞으로 다가올 총장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또한 이인에서 규정해야 하며, 학내구성원들은 현재의 결정을 올바르게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는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 국보법 철폐-군비감축은 통일 주춧돌

7천만 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 회담이 지난7일 막을 내렸다. 남북양국이 공히 이야기 했듯이 이번 회담은 비록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그래도 쌍방이 이에 대해 공식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개최, UN가입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기구 설치등 민간교류 차원과 정치·군사적인 사항에 관해 국회 일부분이나도 남북양국이 의사를 같이한 점 또한 통일대장정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담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우려와 함께 회담의 전제조건을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남·북한 공화민간차원의 전면개방·자유왕래·경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서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통일대장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태에서 전면개방 자유왕래는 언어도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달에 열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또 하나 짚고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측 정부에서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순으로 이어지는 '군비감축'이다. 미·소냉전체제가 무너지는 국제정세를 직시할때 군축은 실로 시대의 흐름이며 또 통일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측 정부에서 내놓은 군축안을 보면 군비감축은 미래의 일로 정해 놓고 시가나 규모·방법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군철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 정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해결 수 밖에 없다. 핵문제는 조국통일의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 겨레의 생존과 직결된 실로 한차원 높은 문제이다. 그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것은 우리측 정부가 겨레의 앞날과 평화적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못 의심스럽게 만든다.

아주조목 내달 명양에서 열릴 제2차 회담에서는 우리측 정부가 3단계 군비감축안을 수정·보완하고 북측이 이에 상응으로 대해 7천만 겨레의 통일열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군대와 사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국채로 독재로 가는 국가는 못보았다'는 부원서 성고문사건 재판 당시 의문을 많이 다녔던 선배변호사가 변론시 한 말이다.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지적해 준 말로, 지금도 강하게 기억되고 있다.

흔히 사법부는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로 일컫어진다. 국가 공권력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는가를 감시·견제하는 마지막 기능을 사법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칠이 없을 것이다.

5공독재하에서 권력의비호자, 심지어 권력의시녀라고까지 비난을 받아오던 사법부가 6공화국 출범 초기에는 상당히 독립성을 확보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여거자에서 개혁과 민주주의의 바람이 부는 듯했다. 그러나 그 후로 한 때, 공안정국의 한 파수에서 보수화되어 가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사법부는 다시금 권력의 원조자로 기능하는 복고적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경향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시국사법의 대항구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 양심범이 구속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사건에 영장이 떨어질 수 있을까"하고 반문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5공때는 '비밀경찰'이라는 것이 있었다.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사건기록부에도 올리지 않고 정해진 당직경찰을 통해서도 않은 채 특정경찰과 영장을 비밀리에 발부했던 제도였다. 그러나 6공에 와서는 비밀경찰제도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제 시국사법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의 당직경찰에 의해 발부된다는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밀경찰제도가 없어진 지금도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이 대량발부될 수 있던 말인가.

특히 노동사건에 대한 무차별 영장의 발부는 우리를 아연케한다. 5공

때 사법부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의 당직경찰에 의해 발부된다는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밀경찰제도가 없어진 지금도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이 대량발부될 수 있던 말인가.

특히 노동사건에 대한 무차별 영장의 발부는 우리를 아연케한다. 5공



이 상 수  
국회의원(평민당·노동위)

# 인권옹호의 최후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때만 해도 그 범조항의 비민주성, 반헌법성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어 오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차개입금지'조항이 무차별 적용되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노동상담소에까지 구속의 축수가 뻗고 있었다. 합법적인 파업은 그 자체가 업무방해등 다른 죄의 위법성을 조차할 수도 불구하고 파업이 장기화 될 기미만 보이던 노동조직원이나 파업에 가담한 일반노동자에게까지 업무방해죄로 영장을 발부되고 있다.

영장발부는 법한 사람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행하는

권력적 남용과 등으로 일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지안본부장 강민창에게 이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일심의 증거를 배척하고 이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여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명백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왜 다른 사건에서는 상식에도 반하는 억언치 않은 판결을 내리지 알 수가 없다. 저 경원 의원 방북사건의 경우 그는 기소전까지 변호인의 절친까지 차단된 채 고문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들다는 잠안계유기 고문을 당하던

다. 우리 주위의 비록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그것을 일삼아 우리 피부 깊숙히 인식하고 함께 격렬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서로의 작은 고민을 '우리'라는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장대로 본다면 자신과 우리, 나아가서 일민동약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동양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회대 정의과 장기침)

그러나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김 수완 추기경이 어느 기자에게 '신문이 왜 그 모양인가'라고 묻자, 그 기자는 '신문을 기사가 씩나, 국민이 쓰지요'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말은 기자의 변명이라고 하지만 일민은 진실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용기있는 판결은 법관 한 사람의 결단력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지원, 민주적 시민의 의식의 고양과 함께 이루어 진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행행정 눈 앞에 교수명시 불구 강사 출강

요즘, 경제학과 1학년학우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 그것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억울함때문이다.

동아의 모든 학우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한 2학기 수업에 경제학과 학우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것은 교수 아닌 강사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시간표상에는 버젓이 교수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교양강좌가 아닌 전공기초강좌에 강사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학우들은 부당한 처사에 응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시병을 하며, 학교에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학우들을 다시 한번 어이없게 한것은 교수측의 답변이었다.

이제 1학년 밖에(?) 안된 학생들이 무슨 시병이며, 그러한 사소한 행정을 일일이 비판하고 나서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우들에게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교양도 아닌 전공과목에 대한 학과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었다.

요즘 동아에는 '음모적 파행행정' 제단버리 절절하잖는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들어온다. 지금 학내에 바쁘게(?)

있어, 우리 주위의 비록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그것을 일삼아 우리 피부 깊숙히 인식하고 함께 격렬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서로의 작은 고민을 '우리'라는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장대로 본다면 자신과 우리, 나아가서 일민동약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동양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회대 정의과 장기침)

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박물관 문제에 관하여 개신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개신방안은 타대학 박물관 실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점에 명시된 인원구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공개적 학술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학생층 추첨에 있어서 적어도 박물관은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술요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인문대 고미술학과 한정원)

## 총학, 11월 선거가 타당

학생회 회칙 개정등에 관심 가져야

총학, 11월 선거가 타당

## ‘전시실 수준’ 박물관 개선시급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에 '박물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지금의 박물관은 인원구성이나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규모 면에 있어서도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실 수준정도 밖에 안되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어느 박물관이든지 인원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영장의 총체를 묶은 '박물관 규정집'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박물관 역시 이러한 규정집이 있다. 타대학과 비교해서 전혀 손상이 없을 정도로 인원구성과 운영방침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

## 동약 기사식

나 이러한 규정집의 명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물관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박물관 규정집에 의하면, 학예, 연구원, 연구조교 그리고 기타 사무직원등의 인원이 구성되어야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이러한 인원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규정집에 명시된 인원구성을 충족시킨 것은 관장1명만 학예 연구원, 연구조교 한명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운영상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인원구성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예산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박물관 명의로 된 말뚝이나 기타 학술조사 등

동국대학교 제22대 총학생회는 1990년도의 동약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대표 기구이다.

후문을 들었던 게시판에는 이번주에 총학생회 전군기간임을 알리는 전전물과 이후에 총학생회를 위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대조가 붙어있었다.

대조보를 읽는동안 함께 그 글을 읽는 학우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학우들이 더 많았다.

물론 1학기를 바라볼때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학우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들이 총학생회의 일원임을 잊은 채 다만 우리의 이해와 요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오기를 기대한 속에서 그들의 사업들만을 말할 수는 없으리라!

3월말에야 총학생회 구성을

발마한 운영에 있어서도 공개적 학술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학생층 추첨에 있어서 적어도 박물관은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술요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인문대 고미술학과 한정원)

야! 엑스트라! 지금쯤 들어가야지!

「야(野)? 엑스트라?」

# 동약 市場

- 기원합니다!! 무대의 낭만 격려의 꽃다발 소녀의 몸짓 극단 프리아에 뷔베의 '메두사의 뱀목'이 성황리에 끝나며기를 바랍니다. -성공적 공연이 되기를 바라는 정의와 90 사나이가
- 비나이다 학교고사 -100일을 앞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기원한다. -해자에게 오빠가
- 현대를 사는 자성의 현대인이어! 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발전됨을 위해 북한선에서 모입니다. 일시:15일(토) 하루종일 -정치외교학과 90 현대인
- 찾아가세요 90년 7월7일 조흥은행 구좌를 개설한 한복천 학생. '동풍한마당'에 두고 가진 동경과 도장을 찾아가세요. 동대신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제1회 소낙비 영화제 1990년 9월11일(화)부터 9월14일(금) (매일 오후1시, 3시, 5시) ·9/11(화) 한국영화의 날 철수와 만수·바보선언·아재 아재 버라이어티 ·9/12(수) 중국영화의 날 붉은 수수밭(3시)·부용전(5시) ·9/13(목) 채플린 영화의 날 황금광시대·모던타인즈·씨티 라이트 ·9/14(금) 제3세계 영화의 날 로베르·YOL·오피셀스토리 장소:원효관 소강당 I 주최:영화모임 '소낙비'
- 알립니다 \*만약 내 작품이 영화화 된다면? \*좋은 소재가 있는데 영화로 만들었으면? \*코리아 시나리오뱅크란 유능한 신인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연중무휴 시나리오 및 소재를 모집·보관하여 좋은 작품은 각 영화사 및 방송사에 연결하여 영화화 및 방송드라마화 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공모내용
- 시나리오, 드라마, 특집극, 희곡, 각종소재 2. 원고매수 ·시나리오(원고지 250~300매정도) ·드라마(단막극)(원고지 80~120매정도) ·희곡(원고지 100매정도) ·각종소재(원고지 30~40매정도) 3. 접수처 및 문의처(연중무휴:우편접수) (우편번호:1150-010)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5 미주상가빌딩 지하 7호 (주)코리아영상 시나리오뱅크 문의처:784-4341 4. 기타 ·채택된 원고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후 본인 일회하여 계약 체결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코리아 영상 시나리오뱅크 문의 바랍니다. ■생일을 축하한다. 사랑스럽고 통통한 귀분야, 언제까지나 맑은 그 모습 보고 싶다. 생일을 정말로 축하! -영어연극단 89들이 팀
- 참가합니다. 의과대 학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교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간표짜서 참석해 주십시오. ·13일-초청강연회(서울대 황상익교수, 주제-의료윤리와 의료인의 위상, 의화관 종합강의실) 전야제(오후 5시30분 종합강의실) ·14일-체육대회(오전 11시~오후6시, 대운동장) 샘공연(오후6시, 종합강의실) ·15일-종야제(체육 경륜수, 문무관)
- 안부전합니다. 경주캠퍼스 꽃두레(가칭) 여러분, 맑은 일출하시 하고, 이후에 건강하고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꽃두레(가칭)임을 주장하는 이
- 축하드립니다.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나무영 교수님의 작품전을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활동 하시십시오. -미술학과 3학년 박지영드림
- 사람을 구합니다. 신한국고 일 품목 품목 '개구장이 어린 방'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개구장이 어린 방'은 탁아소로써 인력이 평창해 부족합니다. 뜻있는 학우들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응시.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에서 각 학과별 스캠트 스캠트 활동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앨범에 사진 찍었다고 후회하시오 4학년 여러분, 찍어주세요! -자세한 것은 구내전화 300번으로
- 시골 안부 전화 했어요?! 촌뜨기들, 고향집에 전화했어요. 울나라로 서울은 귀족박족인데 고향집에는 아무일 없는데... 부모님께 빨리 전화 합시다. -역시나 시골청년
- 뵙어봅시다. 농업경제학과 체육대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2학년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대표

- 참가합니다. 의과대 학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교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간표짜서 참석해 주십시오. ·13일-초청강연회(서울대 황상익교수, 주제-의료윤리와 의료인의 위상, 의화관 종합강의실) 전야제(오후 5시30분 종합강의실) ·14일-체육대회(오전 11시~오후6시, 대운동장) 샘공연(오후6시, 종합강의실) ·15일-종야제(체육 경륜수, 문무관)
- 안부전합니다. 경주캠퍼스 꽃두레(가칭) 여러분, 맑은 일출하시 하고, 이후에 건강하고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꽃두레(가칭)임을 주장하는 이
- 축하드립니다.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나무영 교수님의 작품전을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활동 하시십시오. -미술학과 3학년 박지영드림
- 사람을 구합니다. 신한국고 일 품목 품목 '개구장이 어린 방'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개구장이 어린 방'은 탁아소로써 인력이 평창해 부족합니다. 뜻있는 학우들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응시.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에서 각 학과별 스캠트 스캠트 활동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앨범에 사진 찍었다고 후회하시오 4학년 여러분, 찍어주세요! -자세한 것은 구내전화 300번으로
- 시골 안부 전화 했어요?! 촌뜨기들, 고향집에 전화했어요. 울나라로 서울은 귀족박족인데 고향집에는 아무일 없는데... 부모님께 빨리 전화 합시다. -역시나 시골청년
- 뵙어봅시다. 농업경제학과 체육대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2학년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대표

## 한가위 귀향차편 안내

-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우여러분의 귀향편의를 위해 20대의 차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가위는 민족의 통일을 밝혀주는 더없이 환한 명절이 되길 일민동약인이 하나로 노래합니다.
- 출발일시:9월28일 10시 불상당
  - 귀향예정인원: 900명 (대형버스 20대)
  - 대상: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 접수:9.12~19일(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도서관앞
  - 접수기간:11:00~14:00
  - 귀향노선:지방 중소도시(20개 노선)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 PM6시30분 이후 연락 TEL:234-9125

# 대중조직화 단위, 씨클로 한계지녀

## I. 80년대 동대 학생회 역사 연구에 들어가며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자처해 살피고 보면 그 문제의 해결의 물적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그 생성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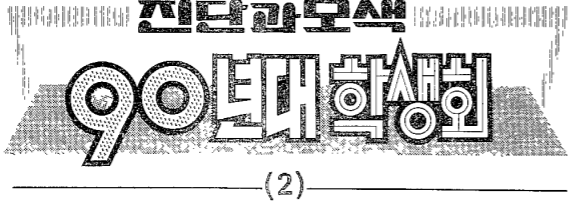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주에 동대학생운동의 질적·역사적(?)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한번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년학생들의 신봉적 세대적 특성과 정치세력화의 동력, 경로를 간략히 살펴보고, 학생회는 자주적 대중조직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런데 학생운동의 발전방향을 내외기위해서는 이것들이 의외로 전체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운동의 위상, 역할, 발전방향, 학생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형태 등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현재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운동 발전방향의 여러 문제들 중 무엇이 역사의 합법적 발전속에서 요구되는 과제이고 어떠한 경계와 실용적 대처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하여 학생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화

와 공유화 시켜볼 수 있다. 그간 학생운동사에 대한 정리·정리·정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학생운동의 도덕성, 정당성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아사중심정리와 정치노선, 조직노선 중심의 정리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의 발전은 통일적으로 고찰할 때만이 기형적 평가(조직형식주의나 실용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

와 필자의 능력상(조직노선을 항상 긍정해 왔던 정치노선의 발전으로 대신) 객관적 정치·사회상황에서의 조직노선의 발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지녀야 할 원칙은 운동의 대중화 및 지도의 안정화이다. 또한 조직노선의 발전을 고찰하는 데도 매시자 학생운동의 위상, 역할의 발전상을 중심으로 사료하여 학생운동 지도노선의 발전노선의 방식도 존재하였지만 이 글은 지도노선과 대중조직은 서로 독자적 질을 갖고 있고 그 발전의 메카니즘도 다르므로 서로 분리·구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확인하고 과학적 정치노선과 대중조직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의 역사, 학생회의 강화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전체 학생운동에서의 논쟁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미하겠지만 현재 동대가 처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보



## II. 학생대중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 건설투쟁

### 1. 학생회의 해산과 학도호국단의 재창설(80년)

79년 10·26이후 80년 5월까지 그는 유신독재의 억압속에서 깃들여온 민중의 민주화 열기로 뜨거워진 시기이다. 동대 학생들도 4월혁명의 산물이자 학생대중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학생회를 다시 건설하고자 80년 4월에 학생총회를 열어 총학생회 부활 일정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5·17군사쿠데타와 피의 대학살로 집권한 군사파쇼 집단은 학생들에게도 파쇼적 테러를 가해왔다.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의해 학생회를 해산 시키고 친정권 중심

의 임명식 학도호국단을 세웠던 그들은 또다시 총학생회를 무너 부활시키지도 못한 학생들을 학도호국단을 다시 창설하여 학도호국단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또다시 학내에는 경찰과 기관원이 상주하여 학원을 최장시간 감시하여 학도호국단과 학생운동조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했다.

80년의 폐쇄 이후 학생운동에 주어진 과제는 파괴된 운동영향을 복구하고 과학적 운동이념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학생운동은 씨클(family)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갔다. 이 씨클은 폭압적 시대상황 속에서 대단히 은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소규모 모의적 수 밖에 없었다. family는 1학년부대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모두 포괄하여 독자적인 이념연구와 실천의지를 행해나갔으며, 각 씨클은 자신들의 고유한 학습체계에 기초하

## 씨클의 종파성 횡행... 학생회 질곡

### 정치투쟁 위해 반합법 투쟁위 제기

### 선거패배 계기 대중노선 논쟁 확산

도를 더해갔고 이에 5공은 새로운 통치전술인 기만적 유화 조치를 구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봉쇄되어있던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현시켜줄 자주적 조직인 학생회가 요구된다는 것은 학생대중들과 학생운동조직 부활에 걸림 공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총학생회가 다시 대중적 투쟁에 의해 부활된 것은 80년의 폐쇄와 운동권에 대한 파쇼의 모략책동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말하며 학생대중의 변혁의지는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학생대중의 전통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17대 총학생회는 그 역사적 의의와 감격에 비해 학생회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특히 반합법 씨클운동으로 운동력을 축적시켜온 학생운동계는 학생회의 정치투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학생운동에 부여된 선도적 정치투쟁의

결과 이 당시까지 대중의 식과 조직화의 기본 단위는 family였고 학생회는 보다 많은 대중을 의식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family의 외피였다. 또한 대중공개투쟁의 공개적 단계는 반합법투쟁의 산인투쟁이 학생회의 위상정립과 활동방식의 문제는 학생운동의 주요한 고인이 아니었다.

86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학교에서는 새로운 정치노선인 반체제는 대두되고 조직노선 역시 RMO(혁명적 대중노선) 노선이 제기되었지만 우리 학교는 정치노선에 있어 NDR(민중민주혁명론)을 견지하고 수화하면서 투위의 이념이 민중노선로 바뀌었다. 조직노선의 문제는 계속 지속되었다. 학생회 부활 이후 학생운동은 헌신적 투쟁과 노력의 결과 운동영역은 급속히 발전해 갔다. 하지만 family와 투위중심의 조직형태는 곧 커다란 한계점과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

## ◇클링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 현재)
4. 회조적 기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투의 문제
6. 계열체계 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8. 총평-정리

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합법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기하였다. 당시에는 긴급한 투쟁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만큼 학생회가 유약했기 때문에 선도적 학생들의 결사투쟁이 결성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올바른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회의 문제적 차원에서만 사고했기 때문에 투위를 통한 올바른 실천을 어디로 귀결시킬 것인가(즉 학생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과 분리된)를 밝혀지 못한 핵심적 오류를 범하였다.

중합투쟁의 활동의 중심이 대중공간속에 있지 못하고 협소한 씨클에 한정됨에 따라, 운동의 대중적 발전에 질곡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씨클에는 학벌위계 질서라는 봉건적 장벽들이 나타나 구성원의 자발성, 능동성을 가로막았다. 또한 각 family의 지도적 부분들은 효율적 동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운동의 전체적 발전을 위한 결사투쟁으로 사고하는 중파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86

년말 있었던 19대 총학생회선거에서 학생운동계에 선거 패배라는 충격으로 접목된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거패배의 충격은 새로운 정치노선의 유입과 맞물리면서 조직노선상의 혼란과 발전을 위한 격한 대쟁투로 이어져 87년의 격한 대쟁투와 대중노선투쟁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예견하게 된다.

## 장기봉 (본고문)

이 시리즈는 독자여러분의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목적으로 쓰여지는 글입니다. '지도'와 '노선'이 아닌 '과에서' 등에서 그리고 학우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술술 읽는 살아있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잡이. 독자여러분의 건강한 재원을 부탁드리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독자투고 토지주택 문제의 전망과 대안

### 1) 독점자본의 성장과 부동산투기

최근 전·월세값의 폭등으로 그것을 감당못해 비판자살, 전 가족의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적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와 반민중적 독재권력과 특권층을 위주한 토지주택 정책에서 기인하며 자본의 축적구조와 관련, 전체면적은 동선상에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은 당초 도시빈민 연구소에서 60대기량의 분방으로 투고했으나 지면의 한계상 15배씩 2회에 걸쳐 쓴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점자)

### I.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부동산투기

자본주의 경제법칙에 근거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생산수단의 집중은 필연적이며 노동자들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시킨다. 즉 자본주의적 축적이 빠를수록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비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 2) 토지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계급관계

자본주의의 축적율과 축적양식에 따라 지대로 변화되어 왔으며 독점자본과 그에 밀착된 정치세력은 이러한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에서 권력통화제로의 이전에 의해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가 주가적 만능력으로 유별되는 현대 국가독점단계에 있어 부동산 투기는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독점자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예금을 독점하고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의 진전에 따라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예금은 엄청난 특혜이다. 또한 토지거래의 상승으로 독점자본의 담보력은 강화되며 이것은 은행예금의 독점을 강화하는 메카니즘으로 한국독점자본의 특성이자

### 그리고 계급지배에 주요한 정치가, 관료, 중소기업, 은행의 간부들도 일부여신을 분배

이것은 개별이익을 통한 자본의 축적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는 곧 반민중적 토지거래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의 명목으로 빈민들을 더욱더 몰아내고 비좁은 빈민굴 행성을 강제한다. 60년대 이후의 신도시와 과정에서 자본축적 메카니즘을 파악할 때 토지 점유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원조에서 차관 경제로의 이행, 통화증발은 특혜층자와 맞물리면서 대규모 투기행태로 이어져 특히 88~89년 사이 도시지역의 화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초에 걸쳐 1, 2차 오일쇼크, 세계경제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소득에 의한 무리한 통화화 공급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인 격추를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박정권의 봉쇄는 지배세력 계급의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끝이론은 군사 구대타로 이들은 '독점자본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극복을 시도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3차오일쇼크를 기반으로 토지거래와 금융자본의 여러분파들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간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전진통을 토대로 임리력의 지속적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독점자본은 은행예금만이나 증권시장등을 통해서 얻어진 엄청난 자금을 사·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 조성을 겨냥한 임야투기·간척사업에 집중시킨다. 이러한 대규모 토지점유에서 투기는 연쇄적으로 타지역까지 파급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적 규모는 지난 10년간 생산부문의 비교할 때 7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 서민 생존 목조르는 자본과 권력

## 5% 특권층 전국토 62% 점유 재벌 부동산 담보로 은행여신 독점

이것은 개별이익을 통한 자본의 축적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는 곧 반민중적 토지거래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의 명목으로 빈민들을 더욱더 몰아내고 비좁은 빈민굴 행성을 강제한다. 60년대 이후의 신도시와 과정에서 자본축적 메카니즘을 파악할 때 토지 점유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원조에서 차관 경제로의 이행, 통화증발은 특혜층자와 맞물리면서 대규모 투기행태로 이어져 특히 88~89년 사이 도시지역의 화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초에 걸쳐 1, 2차 오일쇼크, 세계경제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소득에 의한 무리한 통화화 공급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인 격추를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박정권의 봉쇄는 지배세력 계급의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끝이론은 군사 구대타로 이들은 '독점자본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극복을 시도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3차오일쇼크를 기반으로 토지거래와 금융자본의 여러분파들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간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전진통을 토대로 임리력의 지속적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독점자본은 은행예금만이나 증권시장등을 통해서 얻어진 엄청난 자금을 사·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 조성을 겨냥한 임야투기·간척사업에 집중시킨다. 이러한 대규모 토지점유에서 투기는 연쇄적으로 타지역까지 파급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적 규모는 지난 10년간 생산부문의 비교할 때 7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것이 개별이익을 통한 자본의 축적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는 곧 반민중적 토지거래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의 명목으로 빈민들을 더욱더 몰아내고 비좁은 빈민굴 행성을 강제한다. 60년대 이후의 신도시와 과정에서 자본축적 메카니즘을 파악할 때 토지 점유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원조에서 차관 경제로의 이행, 통화증발은 특혜층자와 맞물리면서 대규모 투기행태로 이어져 특히 88~89년 사이 도시지역의 화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초에 걸쳐 1, 2차 오일쇼크, 세계경제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소득에 의한 무리한 통화화 공급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인 격추를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박정권의 봉쇄는 지배세력 계급의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끝이론은 군사 구대타로 이들은 '독점자본내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극복을 시도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3차오일쇼크를 기반으로 토지거래와 금융자본의 여러분파들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간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전진통을 토대로 임리력의 지속적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독점자본은 은행예금만이나 증권시장등을 통해서 얻어진 엄청난 자금을 사·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 조성을 겨냥한 임야투기·간척사업에 집중시킨다. 이러한 대규모 토지점유에서 투기는 연쇄적으로 타지역까지 파급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적 규모는 지난 10년간 생산부문의 비교할 때 7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 이규옥 (이과대 물리4)

###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대학생 대상 '東大文學賞'이 매년 그 물결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문학의 올바른 토양대전을 위한 이 文學賞이 대학가와 여러분의 들끓는 문학정열에 힘입어 가장 권위 있는 大學文인 등용문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  
 詩부분: 5편이상  
 小說부분: 60자 내외(2백자 원고지)  
 評論부분: 60자 내외(2백자 원고지)

◇응모요령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제출기간: 1990년 9월24일~9월28일까지  
 시 상: 시 부...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임상작과 함께 발표  
 당선작 발표: 1990년 10월24일자 본지 紙上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작품발표에 『東大文學賞』 응모작이라 지시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대신문사

###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본 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판권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심리검사
  - 종류: 적성종합검사, 인성검사(MMPI), 흥미검사, 지적능력검사(IQ Test) 등
  - 실시: 가. 집단검사
    - 1차: 1990.9.17(월) 오후 5:00
    - 2차: 10.15(월)
    - 3차: 11.12(월)
  - 나. 개별검사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00
2. 상담
  - 성격,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기타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3. 자료이용
  - 해외유학, 취업정보, 교적 순위고사, 대학원진학 관련자료 등
4. 이용방법
  - ① 심리검사 및 상담은 본연구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신청한 후, 심리검사는 지정된 일시(요일)에, 상담은 담당 상담원과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을 의논하여 결정. 단, 자료이용은 수시로 가능함.
  - ② 접수시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00~오후 4:00
  - ③ 접수장소: 학생생활연구소(교수회관 3층 3-1호, ☎ 3416)

## 학생생활연구소장

### '90 후반기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지원자격: 4년제대학~1학년('68.11~'74.11 출생자)  
 2학년('67.11~'73.11 출생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0.9.1~'90.9.30(학군단본부)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서)
지원서(사친첨부) 및 서약서 2지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2지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2지부	재정보충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2지부
사진(4×5cm) 3매	사진(4×5cm) 3매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정책), 면접, 체력검사  
 2차: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90.12.23

특전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원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육군본부

### 육군 카투사 모집 ('91년도 전반기)

모집인원: ○○○명  
 지원자격  
 학력 및 신체: 학력중졸이상, 신체등급 3급 이상  
 연령: 만17~23세('67.10.5~'73.10.5)  
 접수일 기준 3개월이후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 대상이 없는 자  
 의사가 전역대상자가 아닌 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0.9.3~'10.5  
 장소: 서울 부산 대전 대구지방 병무청 모병관(지원서는 각대 학군단에서도 교부)  
 구비서류  
 1차  
 지원서 1부  
 사진(4×5)3매, 인장, 주민등록초본 1부  
 2차  
 주민등록등본 2부, 호적등본 1부, 사진(3×4)1매

전행방법 및 일정

구분	시험과목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선발	영어, 국사, 국민윤리	'90.10.14	'90.10.31	병무청에서
2차선발	면접시험	'90.11.6~11.8	'90.12.19	병무청에서

※ 단 2차 선발은 1차에서 선발전 자에 한함.

기타  
 입영시: '91.1월~5월  
 입영순위는 생년월일 연장자순으로 하게 함.  
 입영시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 병무청 모병관 참조 문에 바랍니다.

## 육군 종합행정학교

# 다시찾은 한눈으로 자주 통일을 보리라



◇부상당시 아버님의 걱정하시는 모습과 퇴원후 건강하게 등교하고 있는 김진태군의 모습.

## 5·9 직격탄 희생자 김진태군 수기

“눈 떠 보십시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두평의 선배님들에게 부축을 받고 누웠던 그 곳은 아마도 응급실이였을 것이다. 정확하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주위의 분위기가 식연치 않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이 아닐 수 없었다. 곧이어 한 사람이 내걸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 떠 보십시오. 이 불빛 보입니까?”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상처가 심했기 때문에 의사가 묻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빛을 보려고 애를 썼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왼쪽 눈으로 그 빛조차 볼 수 없었다. 너무도 갑자기 당한 사고였기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니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단지, 이 사실을 집에 알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지도 모를 어머님 얼굴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나는 이더러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마치 영영 잠들어 버린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다.

### 평범했던 중고교시절

블로그를 믿게 되었던 학생시절 ‘마허만야 바라된다 심정...’ 내에게는 너무도 편안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별명소리였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펜지 모르게 블로그에 심취하게 되었던 나는 주마다 한번씩은 토요일을 거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해야만이 일주일의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시작되었던 나의 이런 중독생활이었지만 그 속에 서도 무언가를 얻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기위해 노력하면서 단 한가지만은 머리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부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가 물어 올바른 자세를 받자라”라고 하신 법사님의 설법내용이다. 그때까지만해도 내내 내내나도 어려운 내용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자세를 모든 중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일까. 그러려면 먼저 내 주위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우리

### 선생님 통해 ‘민주’배워

고3때 이였을 것이다. 누가 생각 하더라도 고3시절을 돌이켜 보면 아침세벽부터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저녁늦게 자정이 다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역시 고3시절은 여느사람과 다름없이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그나마 나에게 있어서 위안처가 될 수 있었던 존경스런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헌신적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기있는 선생님이었다. 어느날 그 선생님이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수업을 하지 못했다. 내용인 즉은 86년 있었던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 이라 했다. 결국은 우리의 절을 떠 나야만 되는 지경까지 상황이 악화 되었다.

### 침을 수 없었던 학원비리

이렇게 시작된 나의 대학생활, 야 했다. 부모님의 얼굴을 대하기 부끄러웠고,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했다. 고교시절에 기렸던 꿈이 산산히 깨져 나가는 패배감이었다. 쓰라린 고통이었다. 고3때 그들이 자꾸만 머리에 남아서 나를 괴롭혔다. 웬지 나의 장래도 책임지지 못하는 놈이 무슨놈의 민주라, 통일이니 떠나라 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 없었다. 친구중에 대학에 들어간 애들은 나를 만나면 알아듣기도 힘든 말을 써가면서 민족, 민주, 자주해방 등등의 말을 떠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았다. 다만, 고생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욕만이 자꾸 나를 괴롭혔다. 그러 기를 1년, 마침내 부모님에게도 웃음 솟아 피었다. ‘대학합격!’ 이 아들이 장하다고 기뻐하시면서 서너를 들었는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다.

### 격이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

렇듯 온갖 부정·비리가 판을 친다면 학교의 주인인 내가 앞장서서 깨끗히 청소해 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속에서 어느덧 학원 민주화, 자주화하는 말들이 웬지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의 생활이 변해가면서 점차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을 나름대로나 조금씩 가져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1학년 여름방학때 농촌봉사활동을 갔었던 경험, 학비를 마련하기위해 해질녘까지 열심히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농가부채, 잔업에 야근하며 뼈빠지게 일을 해도 임에 풀릴거리는 빠듯한 봉급에

## 입원중에 어머님 눈물 가장 고통스러워 학내비리·농촌아픔 보며 현실에 눈 떠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민족국가... 이런식으로 말이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대학을 가서 졸업후에 남보라는 뜻이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나에게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나에게도 하나의 남들처럼 어려운 일이 벌어

나를 잃을 수 없었기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선생님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1천8백여명의 전교생이 단결된 힘으로 그 선생님을 구해 낼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그대로 현실로써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의 선생님을 우리가 구해낸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민주라는 말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다른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고교시절이지만 그리 특별하지는 않았던 고교시절을 따지고 나는 그제 겨우 그것을 웬런던 대학진학에 좌절을 맛보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 나태모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우리사회는 왜 불공정에서 애기하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일까. 너무도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도 학년이 나에게는 또다른 고민들이 찾아들었다. 정의편에서 써서 써나 가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부딪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대학생으로서 갖는 기득권 을 포기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졸업후에 풍요롭게 살기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커다란 기대감을 저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풀기

### 자주·통일 위해 노력

후배들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거리를 달려나갔다. 여느때와는 다른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동참으로 여 거기에서 우리모두에게 민족의 우렁찬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은 있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내에게는 쓰라린 상처를 가져다 준 날이기도 하지만 한성이후 조유의 기관적 ‘3당합당’으로 ‘민자당’이라는 괴물도 부터 많은 민중들의 더욱더 큰 아픔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5월10 일 저녁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알 수 없었다. 단지 내 앞에는 절경만 어둠이 내를 가로막고 있었다. 두손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만져보니 두눈 을 가린 봉대와 반창고 뿐이었다. ‘이제는 끝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 다. 차라리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 다 아무도 몰래 죽어버리는 것이

###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남

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없거나 불편한 일인가. 아니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내 앞에선 더욱더 눈물을 감추지는 어머니의 소리를 귀로 들을때면 더욱 더 괴로웠다. 그러기를 한달 여, 2차수술을 하고 나서는 오른쪽 으로 물레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달이 지난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항상 내곁에서 나와 함께 생활 해야 하는 사람결에서 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결이기에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때문인지 처음에 가졌던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중 있게 할 수 있었다. 아니 민족을 위해 민중을 위해 싸우다 다친 나의 두 눈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렇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이뤄내야만 할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시간 어 디선가 폭력정권이 휘두른 칼날앞에서 나보다도 더 심한 아픔을 겪는 우리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 심히 투쟁하여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들을 앞장서는 것이었다. 그날이 오면 그때야말로 아들의 고통때문에 피로와 눈물지으신 어머니의 눈물과 민족의 참된 해방과 우리 어머니같은 민중들의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 한데 어울려서 한반 도 오여의 역사를 굽어쳐 흐를 것 이다.

## 사랑으로 빛보게된 진태의 눈

### 인터뷰

“더 이상의 젊은이들 희생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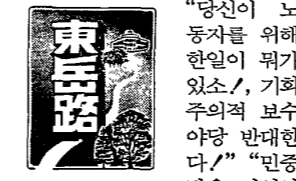


홍숙 자씨 (김진태군 어머니)

“피가 마르고 뼈가 삭는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아무튼 진태가 살아준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9일 ‘민자당정당합당대시 위’를 벌이다 경찰이 쓴 직격탄탄탄에 맞아 왼쪽눈을 잃고 최원환 김진태(사회)군의 어머니 홍숙자씨는 당시의 심정을 말한다. 그동안 병원에서 몇차례의 큰수술을 받고 오른쪽눈의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에 최선을 하고 학교에 나오고 있는 김진태군의 어머니를 만나보았다.

있으니 울고싶어도 울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진태가 그나마 왼쪽눈이라도 회복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군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의사가 두눈이 모두 위험하다면서 왼쪽눈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해 낙담했어. 그러나 수술을 한후 오른쪽눈이나 시력을 회복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특수콘택트렌즈를 하고 안경을 써서 0.5정도까지 회복된 상태인데 학교친구들이 많이 도와주

었으면 좋겠어요. ▲최후판을 쓴 진태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경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 한테 있었지요. ▲민자합당에 가입하셨는데... -구속자와 부상자의 가족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보니 우리 자식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머니들이 나서야 한다는 걸 느꼈지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자 아니라는 생각이 했구 요. ▲민사소송을 청구하셨는데... -물결적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태처럼 다치는 학생이 없어야겠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리고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홍)



“당신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있으. / 기회의 주의를 보수 양당 반대한다.” “민중당을 건설하여 재벌정당 민자당을 타도하자.” 지난8일 ‘민자당 독재분쇄 및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에서 민중당 건설 부산지역 학우위소속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정지연설을 하려 는 노무현(민주)의원에게 의진 말. “최송합니다.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라는 체적으로 들렸습니. 범민주적 야권통합을 위해 당내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분열세를 축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노동원은 자신을 욕(?)하던 학생들에게 사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학생들의 반대구호는 계속됐고 대회 진행을 바라는 학생들은 야유를 보내 파찰이 일 듯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 단결투쟁

“여러분 /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짚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러한 정치토론은 자리를 마련해 진지하게 하도록 합시다. 흐트러진 대의를 정리하고 단결 투쟁가를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발쟁(?)’은 일련락

됐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인상은 퍼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성연회에서 말하는 운동권의 분열을 입증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라고 취재중인 김진태 기자는 말한다. 그러나 보수야당 의원을 막던 부산동맹에 김학영은 “우리는 분열을 야기하고자 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수야당이 노동자를 위해 헌신이 전무하기에 그들을 규탄하는 뜻으로 했습니.”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7천만 민중의 적 민자당을 분쇄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결의장소에서 분열양상은 비판의 대상.”이라 말하고 “민주세력의 총 단결만이 민자당을 박살낼 수 있다.”라며 학생들의 단결투쟁을 호소했다. (이진호 記者)

###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 世界の自由와 平和, 繁榮 —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일시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빙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태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시추용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몬순기 악천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상해의 천원기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現代는 이제 시베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 노동자 8명 집단분신한 금강노조를 찾아

지난 8월30일 공권력으로 인해 금강노조 노동자 8명이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중 원태조(후생복지부장)씨는 전신90%화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신강식(위원장) 박성호(부위원장) 방효천(회계감사) 조오복(사무국장) 정만교(조직원) 위성준(조직원) 노원균(조직원)씨들이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이들에서는 회사측의 공권력 투입과 분신경위, 그리고 '대책위' 조합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전신 90%의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원태조(후생복지부장)씨

## 폭력적 공권력이 빚어낸 참화

### 노동자들 단결만이 살길임을 느껴

### 회사측 기만적 폐업철회후 조합원 회유

"우리는 우리의 기계를 몰래 빼내다들던 도둑과 맞서 싸우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자도둑을 잡아달라 경찰은 오히려 우리들이 불법집회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라느니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였고 38명을 연행하면서 우리의 동지 8명을 불길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라며 지난 30일, 금강노조 분신사건 이후 구성된 '금강노동자 집단분신 유발한 살인적인 공권력 분쇄 경기남부노동조합'을 구성한 이우구(위원장) 박성호(부위원장) 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회유를 시도했다.

사건의 경위는 지난 8월10일 안산시 반월공단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일체를 생산하는 금강공업주식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89년 노사협약에 노사가 합의한 인상임금 20%중 89년 1차적으로 받은 17%를 제외한 2~3% 추가인상분에 대해 회사측은 창립기념일날 '연말보너스 줄때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독살을 하고 나갔다.

이날 저녁 분노를 느낀 노동자 55명은 인근 '원폭공원'에 모여 그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노조 결성을 결의, 즉각적으로 위원장에 신강식씨와 부위원장에 박성호씨를 선출했다.

다음날인 8월11일 노조결성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속속 가입, 1백35명 노동자중 총 1백80명이 조합원이 되어 '금강노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노조는 14일 회사측에 상견례를 요구하며 정식으로 교섭에 들어갔지만 회사측은 1, 2, 3차 교섭 모두를 평계를 대면서 회피했다. 노조가 4차교섭을 기다리던 중 8월29일, 회사측이 10여대의 트럭을 동원해 기계설비의 원자재를 반출시키고 기수사를 봉쇄하면서부터 이번 사건이 발화했다.

회사측이 기계설비를 빼돌리는 것을 목격한 봉영수(조합원)씨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연락,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합원 80여

명인 밤11시30분쯤 정문앞에 집결,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기계설비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뿌리를 뽑으려고 기계를 빼돌리고 유입을 하려고한 회사측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은 경찰들이 몽둥이와 방패를 가지고 접근해오자 사태가 심각함을 느끼고 온몸에 신나를 뿌리면서 '더이상 가까이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라이터를 잡고 있었지만 방송대장이라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박부위원장의 손목을 비틀었어

요. 서로 밀고 당기는 순간 갑자기 '땡'하는 소리와 함께 방송대장은 박부위원장을 밀었고 부위원장의 온몸은 불길에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열과 뒤의 다른 동료에게도 불길이 붙어 버렸습니

다"하면서 그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한편씩(홍보부장)씨는 "우리들은 회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간에는 그정도로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

다. 회사측은 노조라는 것은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신90%의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하여 시흥병원에서 지난 10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온 원태조(후생복지부장)씨를 비롯 박성호부위원장(75%화상), 신강식위원장(50% 화상), 정만교(조합원), 방효천(회계감사) 위성준(조합원), 노원균(조합원), 조오복(사무국장)씨가 화상을 입고 열흘이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 소식을 들은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서 알았어요. 믿어지지 않고해서 큰아들더러 좀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사실인것 같다고 하길래 그날로 밤11시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강원도점에서 뉴스를 통해 처음 아들의 소식을 접한 박성호부위원장의 어머니는 열흘동안 아들들 셋수발에 지친표정으로 한숨만 연달아 쉬었다.

"처음왔을때는 이게 내자식인가 남의 자식인가 눈으로 봐서는 영 몰라보겠습다. 어쩌나 다리가 구들거리고 기구는 쿵쿵 뛰던지 나도 내장신이 아니었습다"라면서 "지금이야 뭐 더 바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다. 내자식이 이렇게 된것이 내자식이 일하다 저 잘못으로 다진것도 아니니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것은 당연하고, 그저 원래로 습으로 돌아가기만 비는 마음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만교씨 부인 전연숙씨는 "남편이 손가락을 다치고 내자식도 전이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길것이 가슴이쁩니다. 나중이 잘살겠고 한일도 아니고 다같이 좋은일 하려고 했던일이니 누구를 탓할수도 없습. 그저 한가지 버리는 것이 있다면 부상자 모두 하루빨리 다 낫기만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심정을 말했다.

그레도 다른 부상자들은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지만 원태조후생복지부장은 90%화상으로 병원측에서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 부상자들을 병원에 옮겼을때 병원측에서는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고 노조원들이 한겨레신문에 연락해 기자가 오고나후 입원계약이 8백만원과 치료비 일체를 회사측에서 지불한다는 지불계약서를 만들고 나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조합원들은 자비일 회사측에서 휴업을 철회했지만 출근을 하는 조합원은 한두명이고 조합원이나 반장 몇몇만이 출근하고 있어 사실상 휴업상태이다. 가끔씩 회사측에서는 차장 계장급에서 공장장까지 조합원들과 환자 가족들을 만나 조합원들에게는 회유를, 가족들에게는 '격정말라 치료비 일체는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정도로 그리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번 사건에 대해 4대일간지에 사과문을 내고 책임자(경찰서장, 사장)를

처벌하고, 그다음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회사에서 10년동안 일을 한 사람도 사장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파라는 것은 회사측에서 보면 무슨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울것입니다."라면서 한 조합원은 말했다.

조합원들은 사건발생후 며칠간은 분노와 지도력공백으로 일시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을 되찾아 경기남부지역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던 것을 현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노조라는 것에 대해 일반 노동자들은 사실상 알뜰 몇분 더날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처음 노조를 만들었을 때 열혈결에 가입은 했지만 며칠만은 짧은 시간속에서 우리모두는 단결을 원칙이나 잘 했습니다. 작업시간중 쉬는시간을 틈틈히 이용해 항상 집회를 가지고 구호와 노래등을 배우면서 차츰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우리 작업환경도 말이 아닙니다. 얼마전까지는 귀마개를 하지않고 일하면서 '난청'에 걸리는 노동자가 태반이었고 저급도 침을 뱉으면 새까만 가루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공장에는 반원단지역의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공구중 50%정도를 대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의 일은 노가다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조합원 서만숙씨는 작업환경을 말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단언하고 했다.

"우리가 살길은 오로지 '단결' 뿐 더이상 아무것도 없습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조합원은 이명 "진짜 노동자"그 자체였다. <최윤옥 記者>

## 폭발위험 남한의 핵무기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 중립회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글이다. <편집자>

"대한민국(남한)에는 하나의 '위대한 미션'이 있다. 이 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그것을 신봉하고 있다. 그 뜻이 그것은 가히 '국대미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국가가 그 신앙을 보호·지원한다는 뜻에서 국가적 미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미션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맹목적 숭배이다.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핵'은 한국국민의 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핵'에 대한 절대적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는 '핵종교'가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3kg이며 파괴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백20분의 1정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핵무기들은 최소 약 6백에서 1천여기까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핵무기들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닌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1974년 4월 1일 미하원 제출위원회의 1974년도 국방예산에 관한 청문회에서 존 미클루키스 당시 공군장관의 발언의 일부이다.

"한국에 있어 핵병기의 사용을 한정된 수의 병기를 지극히 선택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기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렇듯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1천여기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고 육해공군을 투입 방어한다. 두 번째로 미국의 현저한 이해상관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미국은 해당지역 국민이 싸움 의사가 있을 경우 핵을 제외하고 육해공군을 투입해 방어에 임한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이해상관지역으로 육군을 제외한 해군군만을 투입한다. 이상과 같은 전략에서 한국은 첫번째 지역에 해당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있다. 미국의 핵정책의 하나는 핵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 확인, 부인 또는 부인설명 등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을 통상관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방과의 판계를 고려하여 답변을 할 수 없다. 위의 질의과정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미국의 핵전략하에 언제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 1메가톤의 핵탄두가 서울에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면, 사망자는 1백70만명, 중상자는 9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또 인원이나 수 원, 의정부지역에서 폭발순간을 본 사람들은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측은 단순한 예측일 뿐이다.

##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핵전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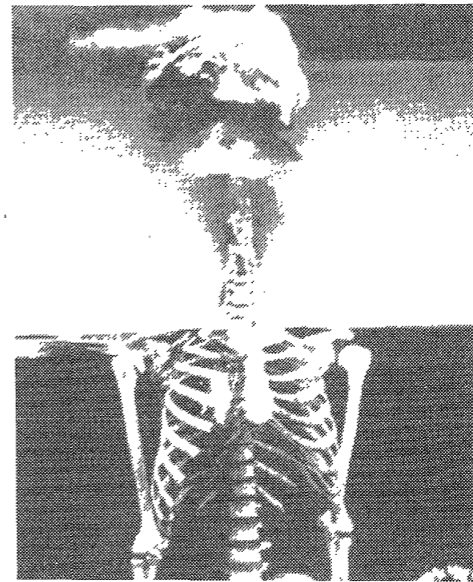
광범위한 신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핵전쟁과 인류, p5, 이영희교수)

1975년 미국방부장관 솔레전지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된 이후,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한 87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시설 부분에 관한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핵폭탄장치 전무기의 주조지역에 한국 1개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미해의 핵전략용 공군기지는 20년전부터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15분안에 출격할 수 있는 긴급반격 비상 전폭기부대가 비밀리에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에서 한국에 관련된 주내용은 핵전략용 공군기지의 핵폭탄 중 전폭기에 싣고 남은 핵무기를 저장할 핵폭탄 저장소를 전폭기의 격납고 바로 밑에 새로이 건설하기 위한 예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청문회 기록은 전폭기와 핵폭탄을 한 지점에 두면 파손을 피하고 작전준비상태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86년 1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핵탄두 장치가 가능한 랜스미사일을 87년 중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고, 87년 2월에 실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기동성과 목표의 정확도로 유명한 랜스미사일은 10kg짜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 무게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1개대대는 109발의 랜스미사일을 갖추게 된다.

그외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판에 5백80여기의 핵탄두를 배치해 놓고 있으며(85년 6월 '핵전쟁') 미육군이 교량과 터널, 도로등을 파괴하는 2종류의 원자폭탄을 역시 판에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85년 5월 미국의 한 과학잡지가 보도했다.

그밖에 한반도에는 지난 60년대부터 적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가 휴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핵지뢰는, 핵배방은 미북부대장으로 개발된 야전유대용 특수핵폭탄으로 무게가 26.



◇한반도내 핵무기 철수는 통일의 선결조건임에 분명하다. 이지도 남·북간에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핵무기 철수는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남한에 핵배치는 공공연한 비밀 한반도 평화위해 핵철거 당언

비밀이 되어 있다.

다음은 85년 5월 125회 국회 본회의에서 거론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다. 의원질문-83년 4월 한·미정례안 보의회에서 미국은 한국을 사활적 이해관계 지역으로 격상시켰고, 당시 미하원 미군 참모총장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대는 109발의 랜스미사일을 갖추게 된다.

그외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판에 5백80여기의 핵탄두를 배치해 놓고 있으며(85년 6월 '핵전쟁') 미육군이 교량과 터널, 도로등을 파괴하는 2종류의 원자폭탄을 역시 판에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85년 5월 미국의 한 과학잡지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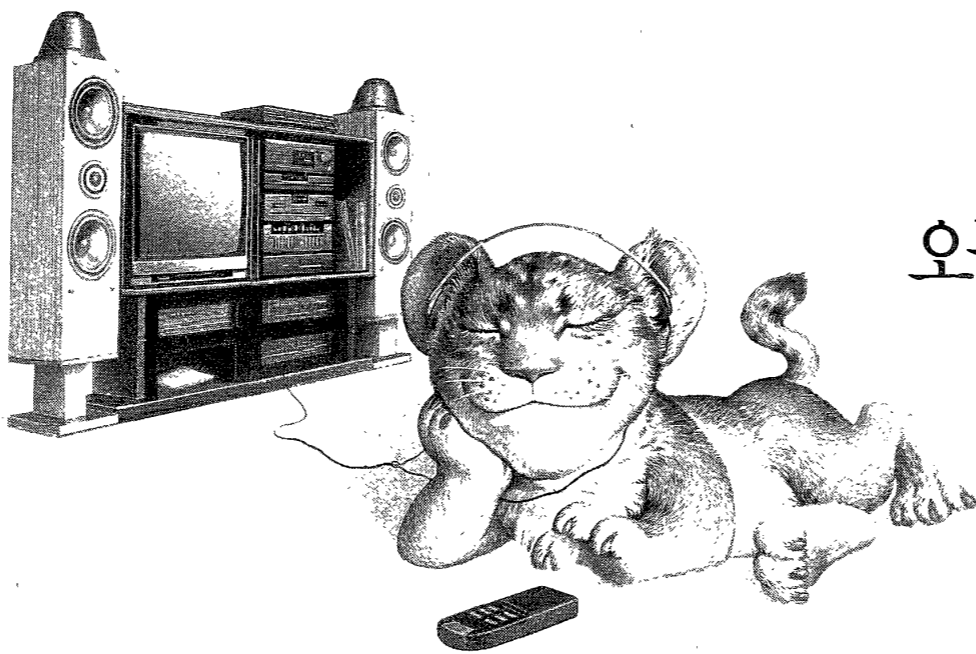
그밖에 한반도에는 지난 60년대부터 적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가 휴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핵지뢰는, 핵배방은 미북부대장으로 개발된 야전유대용 특수핵폭탄으로 무게가 26.

핵폭탄에 의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한반도는 순간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이 가장 유력한 곳이 되었다. 우리민족 중 누구도 민족전멸의 핵무기를 참된 금수강산에 들여놓는 것을 허락할 적이 없다. 더우기 이 핵무기는 남한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소 견제용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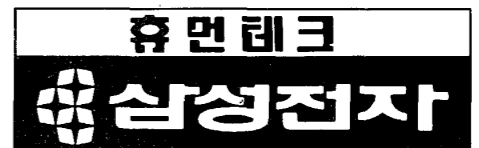
즉, 한국의 핵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억울하게 피폭당한 우리민족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지금, 우리 또다시 핵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 핵은 어떠한 명목도 달더라도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김태영 (평화연구소연구원)



### 오늘,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잠시 손을 놓으면 편안함이 사르르 밀려오는 생활. 바로 그 생활속에 휴먼테크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이 조금만 편안함에서 미래의 편안함 생활까지, 휴먼테크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 건전한 향토문화 보급에 힘쓸 터

## 경주문화모임 연합회를 찾아

“경주문화모임연합회”는 경주지역의 소문화단체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8월18일 창립, 향토문화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립행사로 지난 8월18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화관부, 대금, 가야금 연주, 살풀이 춤, 향방도(봉산탈춤 기능이수자)소리, 사물놀이 등의 순서로 가진 창립공연은 더욱 날씨에도 4백여명의 시민단체가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인 ‘신라문화제’에는 민속놀이 한 마당을 개최할 예정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경주문화모임연합회(회장=문동욱·윤백국)는 그간 경주 지역에서 소문화 모임을 하고 있던 ‘화백회’, ‘세월문화모임’ 등의 회원들이 소문화모임의 고립성과 경주지역의 문화활동의 부재를 함께 극복하고 향토문화 보급의 필요성을 공감, 지난 5월25일 첫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만 못했지만 관선단체가 아닌 의식있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민간인의 문화활동이 그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대부분 시민으로서 문화활동 보급에 미치지 못하고 자체활동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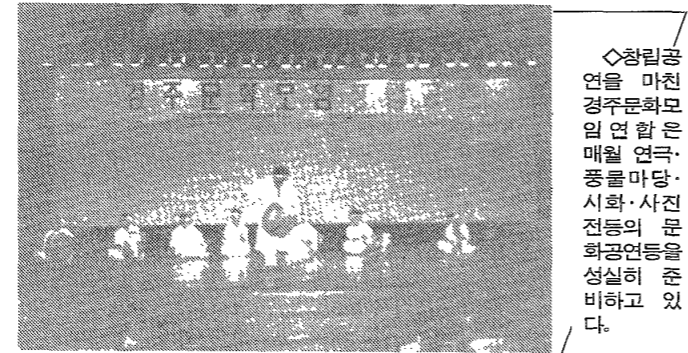
쳤다.

이에 소문화모임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8월, 여러 차례의 모임후 경주문화모임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현재 경주문화모임연합회에 참가하

문화모임, 전통문과(극단두드리), 연기문과(극단에밀레동우회), 한글문과(한글이름 사랑모임, 세월꽃두레모임), 문학문과(화백회)의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인·단체별로



경주문화모임연합회 창립공연 모습

는 단체는 ‘계림가야금교습소’, ‘서라벌국악원’, ‘연계국악원’, ‘윤백국악원’, ‘극단두드리’, ‘극단에밀레동우회’, ‘세월꽃두레모임’, ‘세월문화모임’, ‘한글이름사랑모임’, ‘화백회’의 10개 단체에서 문화활동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각각 문화분과(세월

화된 문화가 전부였다”라고 말하며, “경주시민들에게 고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살아있는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매월 연극, 풍물마당, 시화·사진전, 연주회 등의 문화공연과 주부대학, 연말 해맞이마당과 중·고등학교 대상의 졸업학교 연간 남산가꾸기운동등이며, 오는 10월말경 계획된 ‘경주문화’를 창간할 예정이다.

계간 ‘경주문화’는 경주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종합정보지로서 사진으로보는 경주1백년사, 경주남산사 진마당, 문화행사안내, 새로운책, 제대보려는 경주공부들의 내용으로 꾸민다.

그러나, 경주문화모임연합회는 민간 소문화모임으로 이루어져 경주시의 지원 상태가 미비하고 각각의 활동영역이 뚜렷한 문화단체모임이라 전달할 일꾼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광도시라는 성격으로 인해 읍·면·동까지 퍼져 있는 놀이문화·향토문화가 판을 치는 가운데 건전한 향토문화 보급을 위한 경주문화모임연합회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주시민들에게 고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살아있는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매월 연극, 풍물마당, 시화·사진전, 연주회 등의 문화공연과 주부대학, 연말 해맞이마당과 중·고등학교 대상의 졸업학교 연간 남산가꾸기운동등이며, 오는 10월말경 계획된 ‘경주문화’를 창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주문화모임연합회는 민간 소문화모임으로 이루어져 경주시의 지원 상태가 미비하고 각각의 활동영역이 뚜렷한 문화단체모임이라 전달할 일꾼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광도시라는 성격으로 인해 읍·면·동까지 퍼져 있는 놀이문화·향토문화가 판을 치는 가운데 건전한 향토문화 보급을 위한 경주문화모임연합회

# “소련-門 두드러기” 기행

## 모스크바에서(下)



◇뒤에 보이는 모스크바 대학은 3만명의 학생과 4만5천개의 강의실등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7월 10일은 기와바다 야스나고 심포지움이 있었다. 발표자인 소련 과학아카데미 세계문화연구소 건물은 귀족의 저택이었다는 아름다운 18세기의 건물이었다. 흰색과 연분홍이 주조를 이룬 건물의 앞원에는 뒷집을 지고 면대 하늘을 바라보는 짧은 고리끼의 동상이 서있고, 전경이 높은 종의 왼쪽 벽 꼭대기에도 장난 고리끼의 집은 두상이 거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노벨상 수상작가 기와바다 심포지움에는 김태호박사등 10여명의 소련 학자와 20명의 일본학자, 그리고 캐나다, 중국학자와 내가 참여했다. 소련 학자들의 수준은 아주 높다고 평가되었다.

저녁은 소련쪽의 초대로 소련 작가동맹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우리

# 인민들의 노래... 예술적 저력나타나 백야의 낭만과 거대한 자연 즐겨 국제적 시설의 모스크바대 거대위용 자랑

30여명 일행이 홀로 자리하고, 사방으로 뻗은 문장은 작은 방바다 상부에서는 허허벌판 울퉁불퉁도로 사건을 조차, 축소시켜버린다.

그러나 강진우일행이 “하이빙의 이름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던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며 반발,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고, 팽중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흥을 겨누며 모두에게 언드러야 한다고 명령한다.

분단 교화세력들의 본질이 다 사한 연역과 강제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에 불응하던 강진우일행은 사살되고, 또다른 분단의 피해자인 한 사병이 그의 흥을 빼앗으며 “이제는 내가 언드러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연극은 끝난다.

은 거리의 이름이자 극복해야만 할 분단조국의 현실, 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에는 단지 이연극 한편으로 부족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극단 ‘아리랑’의 ‘불감증’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수 없는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누군가 당선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언드러야 한다고 명령한다면...

“자/ 이제 누가 언드러야 할 것인가?”

(유기승 記者)

저 붉은 광장에서 사진들을 찍고, 이름높은 금 백화점에 들렀는데, 내부수의 중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만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닌듯 싶었다. 광장에서는 한두팀의 한국관광팀도 만났다. 다음으로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장과 온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닌 언덕에 올랐다. 모스크바강이 휘돌아 감기는 저편으로 8백50년의 모스크바가 펼쳐져 펼쳐졌다. 레닌 언덕의 뒷쪽으로는 32층의 본부건물이 지 솟은 모스크바 대학이 있었다. 세계 1백여개 나라에서 3천명 이상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3만명이 공부한다는 이곳에는 4만5천개의 강의실·연구실이 승강기만도 1백개를 넘는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 다시 심포지움이 있었고, 밤 11시55분 레닌그라드 기차역을 떠나는 (붉은화살)호 열차로 우리일행은 레닌 그라드로 향했다. 두명의 타케된 침대칸은 깨

끗하고 쾌적했으며, 2층은 다락이었다. 차가 떠나자 나는 김태호박사와 함께 마이이에서에서 받은 그루지어 꼬박꼬박 맛보며 한국이기를 나누었다. 매미백야의 계절이어서 여행자는 백야의 낭만과 거대한 소련의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드넓은 대지와 산하나 보지 않는 거대한 평원, 러시아 예술이 자랑하는 이 거대한 자연은 레닌그라드까지 달리는 8시간 동안의 절한 이상을 나로 하여금 창가에 머물게 하였다.

김태준  
(문과대교수·고전문학)

당초 4회 연재하기로 계획했던 김태준교수의 ‘소련기행’을 분지사정으로 인하여 분2회로 마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젠 네가 언드러야"

## 연극 '불감증'

“언드러 이 새끼야! 이젠 네가 언드러야 차려야. 언드러, 언드러!”

억압과 굴종을 요구하던 팽중사로부터 총을 빼앗은 한일병은 드디어 그에게 총을 겨누는 이연극의 외친다.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 총부리를 들이쳐 절규하듯 소리치면서 이연극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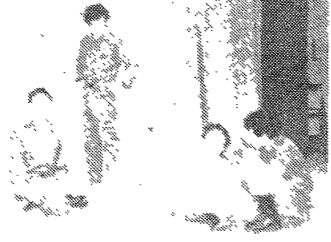
“언드러! 이젠 내가 언드러야 돼!”

남북총리회담개최로 많은 이들이 통일에 꿈에 부풀어 있는 가운데에도 분단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통일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소불위의 족쇄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

통일은 누가 이루는 것인가. 정부측이 전선쓰듯 내던지는 몇몇 제안들로 통일이 오는가 아니면 분단의 피해자인 민중들의 각성과 단결이 통일을 이루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연극 ‘불감증’은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다.

극단 ‘아리랑’의 기획으로 작년 4월부터 석달동안 전국 순회공연을 가진바있는 ‘불감증’은 분단현실이 절박하게 드러나 있는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부대주변에 사는 한여인이 약초를 캐다 미군에게 발견되어 사살된 사건이 발생한다.

팽중사를 상부에서는 이를 멋대지가 죽은것으로 은폐, 간단히 무마해 버린다.

미국에 있어 한국인은 멧돼지보다 못하다는 자학심만 퍼지고 있는 사이 허경민이병이 팽중사로부터 연장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니친 놀림을 당하고, 강진우는 이에 항의하다 구타를 당한후, 정훈교육소장에 끌려가던 자기 비관을 하게된다.

“대학가의 시위에 응공분자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데모하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1백 여명의 화원이 활동중이며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하 고문, 총무, 사무, 편직을 두고 있고 한 달에 1천가량 전세모임을 갖는다.

문동욱위원장은 그간의 경주문화에 대해 “다른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주의 문화는 현상화·박제

으로 오인되어 사살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시 팽중사 상부에서는 허허벌판 울퉁불퉁도로 사건을 조차, 축소시켜버린다.

그러나 강진우일행이 “하이빙의 이름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던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며 반발,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고, 팽중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흥을 겨누며 모두에게 언드러야 한다고 명령한다.

분단 교화세력들의 본질이 다 사한 연역과 강제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에 불응하던 강진우일행은 사살되고, 또다른 분단의 피해자인 한 사병이 그의 흥을 빼앗으며 “이제는 내가 언드러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연극은 끝난다.

은 거리의 이름이자 극복해야만 할 분단조국의 현실, 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에는 단지 이연극 한편으로 부족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극단 ‘아리랑’의 ‘불감증’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수 없는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누군가 당선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언드러야 한다고 명령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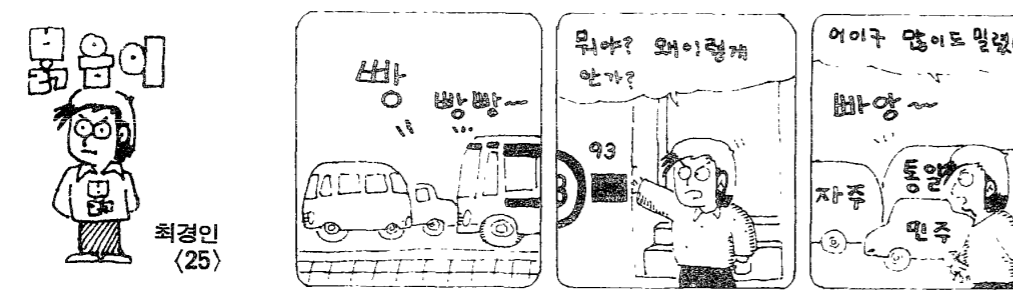
“자/ 이제 누가 언드러야 할 것인가?”

(유기승 記者)

강제징집된 사병의 통일열원 그려 각성과 단결로만 분단극복 가능

학내시위를 주동하다 강제징집당하여 전방으로 배속된 강진우일행과 6·25때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자라난 팽중사와의 갈등에서부터 이 연극은 시작된다.

어느날 새벽 비무장지대안에서



6월 6일... (유기승 記者)

### 민중과 함께

기때문에 그자체가 荒唐無稽(황당무계)한발상이 될 뿐이다. 소중중 현정권이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민주주의’가 무분별한 노조 탄압에 맞서다가 분신한 노동자의 몸통이로 실현된다. 경찰이 파업농성장을 덮쳐 남민물산 노조 간부들 구속해가자 고종기사에서 격분한 여성노동자가 뛰

어내린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거지역의 민민과 동진동화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농정에 저항해야 하는 현실이다. ▲노경권은 한 손으로 통일에 대한 환상삼기를 분주하면서 이주 교묘하게 민중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극악한 현실 앞에 민중들은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하고 청년학생들은 통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각기 떨어져서 노경권의 한손씩과 싸우는 셈이다. 통일과 민중 생존권은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더욱 진지하게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민중이 인간답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수 있는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날이므로

(潤)

# 2천년내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판매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의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내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합한 향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의지로서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하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두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 1984년 아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연료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이미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BTX 공장을 비롯한 최신의 각종 석유화학공정도 설립할 것입니다.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의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